

# 사회복지학에 있어서 사회과학방법의 한국적 수용의 모색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全 浦 軫\*

<차례>	
I.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	1. 전통적 접근
II. 사회복지학의 방법론	2. 사회과학적 접근
III. 사회정책연구의 접근론	IV. 한국적 수용의 모색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 주제를 하나의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매우 희귀하다(Watson, 1983:491). 더욱기 구체적인 사회과학방법론의 논쟁은(김경동, 1983:74) 더욱 드문 형편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분야의 주제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되느냐 하는 의문이 학도들간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필자도 이 글의 첫머리부터 당연히 사회복지「학」이라고 쓰지 않고 사회복지「분야」라고 쓴 것부터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도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사회복지분야가 순수학문은 아닐지라도 실천을 위주로 하는 응용사회과학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가 객관적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과학이란 용어가 풍기는 *status symbol*의 매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응용」인 것만은 틀림없고, 응용을 「과학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 또한 틀림이 없다. 과학적 응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일별해보면 사회복지분야도 사회과학방법론 논쟁의 세 차원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쟁점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이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논쟁의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져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 연구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방법론을 이 분야의 事象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 서울大 社會大, 社會福祉學

그 한국적 수용의 가능성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순서는 먼저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관계를 간단히 고찰한 다음,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사회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논문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I.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

원래 과학 그 자체는 인간이 자신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김동일 외, 1983:8), 사회과학은 더욱 그러하다는 점에서 우선 사회복지학은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적 활동이다. 사회과학은 인간주의적 관심 속에서 인간과 사회 발전의 보편적 지향성을 갖고 사회문제의 실체에 대한 사실적 설명과 기술을 이상으로 한다는 준칙을 갖고 있는데(김동일 외, 1983:93), 이 준칙은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해결로 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다를 바가 없다.

사회과학이 진정으로 필요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의 실제 문제를 연구해야 하며, 그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공동체와 시장체계와 정치 및 권력의場들이 되어야 하고, 사회행동과 사회변화의 역동성에 과감히 맞서고 그러한 역동성을 이해해야 한다(Clark, 1967:xxi). 사회복지학은 하나의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구성(construction)으로서(Walker, 1984:15), 전통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실제 문제를 다루어 왔고, 막연한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회행동과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왔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사회복지학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 엄격한 경험적 분석에 입각하여 인간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회과학은 현대 기술관료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공공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사회복지학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주의적 관심에 입각한 문제 해결의 노력과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지식의 체계인 점에서 사회과학과 전혀 차이가 없다(Romanyshyn, 1974:1). 다만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는 지식의 생산 내지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소홀했었다. 최근까지의 이론화작업이라 해야 사회정책분석이론의 이론들에 대한 것이 고작인데, 이것은 조리있고 적절한 이론적 지식체계의 초기단계일 뿐이다(Higgins, 1981:165).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식을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로 다른 사회과학 학문 분야의 것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다른 사회과학에서 개념, 방법 등을 빌려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걸 맞게 수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Higgins, 1981:165~166). 그리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지식추구의 궁극적 이상이 인간발전 내지는 사회발전에 있다면, 사회과학은 그 이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회복지학은 나름대로 인간 및 사회발전의 이상을 정하고 그에 적절한 실천적인 방법론을 다루어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적 측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모든 사회과학 학문분야가 그 나름대로 다 사회과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겠지만, 사회복지학은 대학에서 「Social Science」학과로서 설립되었거나 되어 있는 것이라던지, 그 보편적인 명칭이 「Social Welfare」 또는 보다 실천적인 명칭으로 「Social Work」인 것을 보더라도 다른 어느 사회과학 학문보다도 더 밀접하게 사회과학 그 자체의 이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겠다.

모든 학문은 인간행위의 한 측면에 대한 해답만을 추구한다. 즉 사회심리학은 인간간의 행위, 심리학은 개인의 행위, 사회학은 전체로서의 사회안에 있는 인간행위, 인류학은 상이한 사회 간의 인간행위, 정신병리학은 이상적(異常的) 인간행위 같은 한 측면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다. 어느 한 학문도 그 전체적 맥락에서 해답을 제시못하는데,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본질 그대로의 이상과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그 해답을 전체로서 제시하려고 노력하며 이것은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의 기본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결코 지나친 과장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Romanayshyn, 1974).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복지학은 어떤 방법으로서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공통적인 지향점을 성취하려고 시도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II. 사회복지학의 방법론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어 온 분야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도 사회문제해결의 직접적인 도움의 대상인 개인, 가정, 집단,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으며, 또한 사회문제를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도, 정책,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은 주로 Social Work 실천방법론으로서 전통적으로 Case Work, Group Work,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ation), Social Work행정, 사회조사, 사회행동(Social Action) 등이 있어 왔으며 그러한 실천방법론이 행해지는 맥락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Social Policy) 또는 사회「서비스」행정(Social 「Service」Administration)이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Social Work 방법론들은 상이한 활동영역으로부터 나름대로 독특하게 확립된 것이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회복지라는 분야로서 하나로 합쳐서 Social Work이라는 하나의 전문적 체계를 만들었다. 전통적이라는 어휘가 나타내듯이 이러한 방법론은 1960년대 이후부터 변형이 일어나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분야의 주제 그 자체를 하나의 이론적 구성 체계로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실천방법들을 주로 하여 구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론도 실천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다른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 확립된 것을 이용해왔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점도 처음에는 사회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영역으로 보던 것을 1900년대 중반부터는 하나의 주된 사회제도라는 구성체계를 세워서 보게 되었다. 즉 사회복지를 구체사업이나 자선사업활동으로부터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만 국한해서 보던 것을 이제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주요 사회제도로서 인식하게 되어 그 대상영역도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인력, 주택, 개인적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등 개인과 사회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사회제도의 본질과 중심기능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없

는 관계로 아직까지 사회복지학을 구성하는 독특한 파라다임이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학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정해진 파라다임이 없는 형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인 사회복지학연구의 방법론은 사회복지분야를 전체로서 보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분야를 하나의 전체로서 다루기 보다는 그나마도 방법론 내지는 접근론의 논의가 진행중인 사회복지학의 한 구성체계로 정립되고 있는 사회정책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에 한정해서 고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학 연구 방법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영·미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분야를 사회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연구함으로써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립시키고자 하는 (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사회과학으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소위 Social Administration이라는 명칭으로 영국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복지를 국가복지 또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도 이론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 III. 사회정책연구의 접근방법론

사회정책연구가 사회과학의 한 학문분야로서 그 방법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 후반부터이나(Edwards, 1981:293~295)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사회정책연구의 독립학문논쟁은 일단락되었다(김상균, 1983:1~24). 이것은 190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분야가 대학교육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이론적 체계를 갖추면서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Titmuss, 1976:23).

더우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주제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1970년 후반에는 그 관심이 두드러지게 고조되었다(Hecllo, 1974:ix).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는 처음에 social worker들을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social worker들이 client들을 도와주고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들에 중점을 두었다(Forder, 1974:11).

이러한 경향은 2차대전까지 지속되었다(Bean, 1983:1). 1950년부터 1970년 대초까지는 전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의 연구

에 전적으로 국한되었고, 사회적 서비스를 인도주의의 확산의 결과로 보았다(Bean, 1983). 이 접근은 소위 티트머스(Titmuss) 접근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티트머스 접근은 사회정책의 연구를 기술적인 임시방편책의 단순한 집대성으로 보기보다 더 넓은 전망에서 보고, 사회정책을 인도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산물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Titmuss, 1968:22). 이 시점까지의 사회정책 연구가 소위 전통적 접근이다.

### 1. 전통적 접근

이 전통적 접근은 사회복지분야의 경험주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의 학문(a discipline)’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연구분야(a field of study)’ 또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지 가능한 하나의 영역(an ill-defined but recognizable territory)’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Donnison, 1965:26). 이 접근은 다른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공통적인 이론적 관심보다는 복지국가라는 공동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빌린 것이었다(Taylor-Gooby & Dale, 1981:9~28). 이 경험주의적 전통은 특히 영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서 이론의 구축보다는 사회적 불행의 완화에 우선적이고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Higgins, 1981:164).

전통적 접근의 특징은 사회복지를 일반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 문제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학자와 이론가의 이해를 위한 지식보다는 정책결정자와 정부의 이용을 위한 처방적 지식을 위주로 하고, 또 사회적 서비스를 다른 사회과학과 사회적 실체를 보는 전망과는 동떨어져서 그 환경으로부터 유리되어 일종의 진공 속에서 연구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긴 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중심적 가치들과 특정 가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Bean & MacPerson, 1983:2~5, Taylor-Gooby & Dale, 1981:10~11). 예를 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연성, 합의된 사회적 목적의 존재에 대한 가정, 그리고 ‘사실들’이 생산되면 ‘사회’는 표출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념 등이다.

이 접근을 ‘기술적 식객(technical parasite)’ 전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Carrier & Kendall, 1977:25~27), 이 전통은 사회복지분야 연구를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다학문적 연구분야(a multi-disciplinary field of study)로 봄으로써 연구의 주제는 소위 ‘진짜’ 사회과학과 관련해서 식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사회복지연구의 분야는 법정복지급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이 전통에 따른 연구는 복지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기술적 이슈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러한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확립된 사회과학으로부터 아이디어, 이론, 개념 등을 공급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과학에 기생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진보를 위한 기여를 거의 못했다(Carrier & Kendall, 1977:28).

이러한 전통적 접근의 경통적 관행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 사회에 대한 합의모델, 정책결정의 합리적모델, 독립적 중재자로서의 국가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해서(Pinker, 1971:3~4, George & Wilding, 1976, Mishra, 1981:18~25) 사회정책분야의 연구주제는 더 확충되고 심층화되었다. 여기에는 다섯가지 이유가 있다(Bean & MacPerson, 1983: 6~9).

첫째는, 사회정책분야 연구의 자체비판으로서 전통적 접근이 이론적 학문으로서 빈곤하다는 것. 둘째는, 국가의 복지역할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대두된 것. 세째, 지속적 자동적 경제성장에 대한 가정이 끝을 보게 되었다는 것, 네째, 사회복지 서비스가 목적달성을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된 것.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68년 이후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도래하여 전통적 접근에 대해서 온갖 난처한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기능주의와 합의이론이 지배적이었던 사회학에서 1960년 말에 갈등이론 파라다임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사회정책은 갈등상황에서의 설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전통적 접근이 명료한 이론적 성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주저한 이유들로는 (Taylor-Gooby & Dale, 1981:13~21) 우선 경험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 정부와 너무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적 약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George & Wilding, 1971:237), 사회에 대한 합의 및 기능주의자이론이 지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Hall, 1975:7), 실천적인 Social Work 과의 관련된 응용사회과학이라는 것(Mishra, 1977:19),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이라는 영국의 노동운동의 특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 접근의 비이론적 경향을 포함한 모든 특징은 포괄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전망(the perspective of the state)’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Taylor-Gooby & Dale, 1981:9~28). 즉 국가는 사회구성에

대한 합의견해(a consensus view of the social organism)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토론은 ‘사실’에 의존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지배적인 전망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Taylor-Gooby & Dale, 1981:9).

따라서 전통적 접근은 현상유지(status quo)를 견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개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입주의와 법정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접근은 최대의 정부개입과 최소의 정부개입이라는 양극사이에서만 운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대 잔여주의(residualism)의 대립을 양극화시킨 것이다(Pinker, 1971:99).

이 국가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복지에 이르는 길로서 믿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신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주제를 국가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국한시키고 그 평가의 기준으로 국가서비스를 택하게 되기 때문이다(Bean & MacPerson, 1983:5). 또한 이 접근은 자본주의적 시장체계들이 민주주의적 정치체계들에 의해서 규제되어지는 특정 사회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에 한정된 분석을 보편화시켜서 제시함으로써 쟁점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무비판적 경험주의는 기존 욕구충족의 장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Taylor-Gooby & Dale, 1981:4). 무엇보다도 이 접근은 영국복지국가의 발달과 영국복지국가가 직면한 문제의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Taylor-Gooby & Dale, 1981:10).

## 2. 사회과학적 접근

그러나 1970년대초부터 전통적 접근 자체가 하나의 이념으로서 인식되면 서부터 전통적 접근의 아이디어, 가정, 접근방법에 대해서 날카롭고 신랄한 의문이 제기되고, 쳐방을 위한 지식보다는 이해를 위한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제도, 정책을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회의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 대두되기 시작했다(Bean & MacPerson, 1983: 10~11). 티트머스는 사회정책 연구가 사회를 전체로서—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는—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고 했다(1974:15).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은 물론 일반화와 설명 및 예측의 필요성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실제적인 이유도 있다. 즉 사회복지 분야는 수많은 개인, 가정,

공동체사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는 분야이기 때문에(Higgins, 1981:165), 사회정책분야 연구를 사회행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야(significant area of social action)에 관심을 가진 하나의 사회과학학문으로서 보게 된 것이다(Carrier & Kendall, 1977:29).

이 새로운 접근은 사회정책 연구주제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캐리어와 켄달(Carrier & Kendall)은 사회정책연구주제의 범위를 간단히 사회의 복지활동, 니드(need)충족을 위한 사회적 장치의 모든 복합체라고 정의하여 사회적 서비스와 공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넓게 니드라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가 '자원에 대한 제어(command over resources)'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다(Bean & MacPerson, 1983:11~12). 워커(Alan Walker)는 사회정책 연구의 주제는 자원, 지위, 힘의 배분을 결정짓는 모든 제도화된 가정, 가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81:242).

새로운 접근에서는 이론에 대한 필요를 상당히 강조해오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한 관심의 뿌리에는 이해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활동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Bean & MacPerson, 1983:12).

이리하여 최근에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적 태도 또는 사회복지의 모델에 입각한 접근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개념화와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전통적 접근인 무비판적 경험주의와 국가에 대한 전망도 계속 지탱해오고 있는데, 구비 태일러와 데일(Gooby-Taylor & Dale)은 이와 같은 전통적 접근이 새로운 이론을 그 틀 속에 흡수시키거나 즉각적으로 거부하면서 지탱해 온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연구가 명백한 비이론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확장과 관련해서 이 전통적 접근을 고찰해야만 만족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aylor-Gooby & Dale, 1981:12).

즉 전통적 접근은 영국복지국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미진한 지적 발달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된 것으로 이 접근의 독특한 방향이 설명될 수 있다(Taylor-Gooby & Dale, 1981:21). 복지국가와의 知的 연결 때문에

11) 예를 들면, Titmuss, 1974; Parker, 1975; George & Wilding, 1976; Mishra, 1981; Higgins, 1981.

다른 가치들의 설명을 포괄하는 비판적인 입장은 구축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겨 난다.

이와 같이 구비 테일러와 테일은 사회정책 연구의 중심은 국가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현대복지국가의 이론적 고찰을 사회정책 연구의 주제로서 제시하면서 기존이론형성의 시도들을 분류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주고 있다(Taylor-Gooby & Dale, 1981). 이러한 그들의 관점은 사회정책의 정의를 보아도 개인적 복지의 증진을 위한 집합적 또는 국가의 私的 시장개입의 사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Walker, 1984:16).

먼저 그들은 사회정책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의 설명에 대한 연구는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의 구조를 광범위하게 고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① 개인주의자 접근, ② 개혁주의자 접근, ③ 구조주의자 접근 등 세 가지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주의자 접근은 문제로 여기는 쟁점을 야기시키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들의 의의를 극소화하거나 부인하는 접근으로서 문제를 개인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속성으로 본다. 개혁주의자 접근은 사회문제의 사회적 생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원인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복지국가정책의 수립을 허용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가능한 한 민주주의적 복지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제도적 개혁으로서 전통적 접근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구조주의자 접근은 사회문제를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형태의 산물로 보며, 그 안에서의 문제 해결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 1) 개인주의자 접근

개인주의자 접근은 다수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행동의 결여를 정당화시키거나 소규모의 가부장주의자(paternalist) 정책만을 인정할 뿐이며, 대규모로 제도화된 복지를 반대한다. 개인주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조와 제도의 역할을 부인하기 때문에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의 사회과학에 어떤 위치도 거부하며, 구조적 사회과정과 사회과학을 부인한다(Taylor-Gooby & Dale, 1981:116~117, 123).

### 2) 개혁주의자 접근

개혁주의자 접근은 제반 문제들을 복지국가의 기준 구조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서 이를 구조와 그 구조가 어떻게 제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들을 가정하고 있다. 이 접근에는 ① 소극적 개입주의(the reluctant interventionism),<sup>2)</sup> ② 규범적 합의(normalative consensus),<sup>3)</sup> ③ 수정주의자 사회주의(the revisionist socialism),<sup>4)</sup> ④ 비판적 정치경제(the critical political economy)<sup>5)</sup> 등의 네 가지 접근이 있는데<sup>6)</sup>, 공통되는 입장은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관념론자(idealist)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Taylor-Gooby & Dale, 1981:70).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첫째, 사회는 비교적 약한 연결고리로서 통일된 구조 또는 제도의 복합(a plurality of structure or institution)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구조나 제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른 구조나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견해와, 둘째, 변화는 신념의 변화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사회적 실체(social reality)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동기, 열망, 규범 및 가치관이라는 아이디어(ideas)에 입각한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사회의 구성(make-up)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제도를 지배하는 한 묶음의 아이디어(the bundle of ideas)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 신념에 의한 동기의 창출을 통해서 단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만약에 아이디어의 구조를 변화 시킬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서 사회를 적절하게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를 분리시키는 관념론(idealism)은 아이디어를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강조한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로빈슨(Robinson)은 이론이 이해되면 이성(reason)이 지배한다는 케인즈의 낙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1964:97). 베버리지(Beveridge)도 또한 ‘추진력으로서의 사회 양심(Social conscience as a driving force)’에서 양심의 변화를 개혁의 뿌리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1944:254). 티트머스가 관념론자 요소를 가장 명백하게 나타낸 말은 그가 틀을 만들었던 사회정책(Social Administra-

2) Keynes and Beveridge

3) Tawney and Titmuss

4) Crosland and Donnison

5) Galbraith

6) ②③을 George and Wilding은 Fabians로 분류(1976, ch. 4)한다. 그러나 Gooby-Taylor and Dale은 Fabianism을 하나의 엄밀한 사상학파라기 보다는 하나의 유동적이고 다양한 전통으로 본다.

tion)이라는 학문적 주제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사회정책은 사회관계와 공동체관계를 야기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제도적인 형태로 발전한 선물교환 및 상호의무의 관념을 체계화한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1968:20~21)라고 했고, 또 ‘사회정책의 통합적 관심의 주된 분야들은 통합을 배양하고 소외를 약화시키는 사회제도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1968:22)라고 했다.

크로스랜드(Croslan)에 의해서 가장 잘 정교하게 설명된 수정주의자 사회주의의 전통은 그 비판의 기반을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분석에 두고 있는데 이 접근은 경험적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의 분석에 있어서 권력의 구조를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구조화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또한 관념론이라는 사회학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Taylor-Gooby & Dale, 1981:79). 영국 사회주의자 전통의 관념주의는 이상적인 목표의 고양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겪는 장애물은 인간들의 마음에서 유래되는 변화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고, 다원적인 의회주의 정치체계를 통한 이성적 논의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견해로 통한다(Taylor-Gooby & Dale, 1981:83).

갈브레이드(Galbraith)의 관념주의는 기술구조(techno structure)와 국가의 연합과 변화를 위한 희망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가진 것이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첫째, 기술구조와 국가공무원의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둘째,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어떤 발명은 채택되고 어떤 발명은 채택되지 않는 역사적과정이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기술 그 자체를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회발전의 기반이며,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앉고 움직이는 사회구조도 아이디어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때 변화는 신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념의 해방이 知的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다른 모든 것은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1973: 223; 1969:347). 이때의 장애물은 계획체계(the planning system)의 기득 이해관계로서 근면과 노력에 대적하는 것이다. 이 장애물의 기초는 동기(motive)라는 심리학적 수준에서 파악됨으로, 개혁은 합리적 논란(rational arguement)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제안이 성립된다(Taylor-Gooby & Dale, 1981:85~86).

이러한 관념론자 기반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국가를 통한 합의 행위에 의해서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복지는 인간적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지지되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접근에 속하는 학자들의 사회에 대한 접근은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제도들은 하나의 통합된 구조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 非만인평등주의 경향의 수정, 또는 공공목표의 성취 등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정책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Taylor-Gooby & Dale, 1981:86). 그리고 이 접근은 전통적 접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비판적인 경험주의에 의해서 예시된다(Taylor-Gooby & Dale, 1981:123).

### 3) 구조주의자 접근

구조주의자 접근은 사회를 통합된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인데, 이 접근에는 ①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과 비판이론(the historical materialism of Marxism and critical theory) ② 규범적 합의에 기초한 구조주의(structuralism founded on normative consensus) ③ 내재적 논리와 사회의 수렴에 중심을 둔 구조주의(structuralism centered on immanent logic & societal convergence)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Taylor-Gooby & Dale, 1981:88).

구조주의자 접근의 사회문제 설명은 첫째, 사회가 구성된 방식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는 인식된 문제의 전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 둘째, 어떤 문제들은 다양한 집단이나 공식 기구에 의해서 문제로서 인식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지속됨으로써 세력을 가진 집단들의 이익에 이바지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Taylor-Gooby & Dale, 1981:43).

경제적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아이디어는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다(Taylor-Gooby & Dale, 1981:88). 이 아이디어는 사회 질서와 사회변화에 대한 종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력하며, 이 설명의 기반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것이다(Taylor-Gooby & Dale, 1981:90). 국가를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견해는 사회문제 해결의 장애를 ① 이윤의 축적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이해관계는 복지목표와 반드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과 ② 자본주의자 생 산체계는

사회적 갈등과 욕구의 법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 들로 본다(Taylor-Gooby & Dale, 1981:96).

관념론에 반대되는 전망인 유물론은 사회를 의식적 통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간실존의 무정한 사실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관계들의 전체성으로(as a totality of relations) 보는 경향이 있다(Taylor-Gooby & Dale, 1981:71).

기능주의의 지배적인 현대적 접근은 파슨즈의 규범적 기능주의(the normative functionalism of Talcott Parsons)와 수렴이론의 기술결정론(the technological determinism of convergence theory)이다. 이 전망에 기여하는 제 요소는 ① 스펠서(Spencer)와 같은 학자들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전통, ② 뒤르켕의 사회유기체론(the social organism of the Durkheim School), ③ 영국전통의 신헤겔주의(the neo-Hegelianism of the English tradition)이다(Taylor-Gooby & Dale, 1981:106~107).

기능주의자 사회이론은 여러가지 전망에서 비판이 되지만, 세 가지만 든다면 첫째, 한 사회체계의 기능적 한계가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발전했나 또 한 상이한 체계들이 어떻게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Hall et al., 1975:10, Pinker, 1971:103). 둘째, 기능주의는 사회적 事象을 의지를 가진 자율적인 인간들의 집합적 산물로 보는 전망을 허용치 않는다(Carrier & Kendall, 1973). 셋째, 사회체계들의 발달과 유지에 있어서 갈등을 더욱 강조하는 비판이다(George & Wilding, 1971:238).

파슨즈의 전망에 입각하여 사회복지를 논한 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아 왔다(George & Wilding, 1971). 파슨즈의 사회체계분석이론은 인간의 안녕을 제고시키는 보다 나은 사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Becker, 1974:19).

적어도 지난 수십년간 사회복지를 하나의 기능적인 사회제도로서 보는 사회학적 분석에 젖어왔다. 이 목적없는 제도적 서술은 변화를 창출하는 어떠한 개입전략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결점이다.

그 외 방법론적으로 체계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탈가치적 접근방법으로서 정형화된 이론의 틀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체면유지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전문화라는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렵이론이란 기술변화의 성향, 사회체계들간에 공통적인 산업 및 범세계적인 상호의존적인 교환체계들의 발달, 평등한 시민의 신분확충 등에 의해서 사회체계들이 수렵된다는 이론이다(Taylor-Gooby & Dale, 1981:6). 갈브레이스(Galbraith)가 간파한 대로 한 사회가 산업화하기로 결정하면 그에 뒤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다(1969:396). 이러한 접근은 역사에서 인간의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론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

복지국가의 遍在현상은 국가, 이념, 정치의 카테고리를 초월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은(Wilensky, 1975:xiii) 수렵법칙을 주장하는 이론들의 타당성을 강력히 뒷받침해 왔으나, 사회와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단일의 '거대이론'은 적절치 못하고 차이성을 설명하지 못한다(Higgins, 1981:160~161).

구조주의자 접근은 국가복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점에 있어서는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사회정책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이 구조주의자 접근의 본질적 쟁점이다(Taylor-Gooby & Dale, 1981:44). 그러한 장애물이란 구조주의자 접근에서는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비—테일러와 테일은 ① 정치적 갈등관(the political conflict view)과 ② 마르크스주의자 견해(the Marxist view)라고 부른다(Taylor-Gooby & Dale, 1981:47). 정치적 갈등관은 엘리트집단이나 계급이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회구조에 동의하도록 교묘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입각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 접근은 유물론자 방법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자, 개혁주의자, 구조주의자 접근들은 본질적으로 복지국가를 그 나름대로의 현상으로 분석하는 것, 즉 복지국가의 존재를 이념적, 정치적, 행정적 객체로 인정하고, 이 현상의 기원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완벽한 성취에 대한 장애의 설명, 복지국가의 역할, 기능 및 방어를 연구하는 것이다(Webb, 1983:99-102).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연구는 이와 같이 주어진 사회적 목표(교육, 보건, 고용, 주택 등)를 지향하는 행동의 설명과 정당화 연구로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거나 실천될 활동의 파악이 사회정책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Watson, 1983:492).

#### IV. 한국적 수용의 모색

사회정책연구 방법론의 한국적 수용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이슈는 사회과학방법론 쟁점의 차원 중에서 존재론적 차원과 관련된 것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연구주제의 존재여부가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다.

영·미의 사회정책연구의 방법은 사회복지활동을 '국가전망'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렇게 명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주로 기능주의와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Carrier & Kendall, 1973:210). 이러한 실증주의접근은 사회적 실체의 생성과 지속에 연루된 과정을 무시하고 무한대의 사회적 실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과 어떤 한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이 무한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Carrier & Kendall, 1973:211),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회적 목표를 위한 국가복지의 발달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증주의접근을 그대로 한국에 수용하는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사회정책연구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시킬만한 사회적 현상이 한국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필연성을 의심없이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이 접근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활동이란 법정복지 의의 것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사회복지활동은 서구의 그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복지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실증주의접근을 수용한다면 소위 경제주의의 맥락에서(김동일외, 1983:96) 차지하고 있는 국가복지활동의 양적, 질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복지, 사회정책, 사회복지는 그것이 모델로 삼는 복지국가를 따라갈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도 산업화와 더불어 몇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그렇더라도 국가복지의 확충이 기대되고 있음으로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전망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결정론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이며, 사회정책의 연구도 오직 운영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능주의와 실증주의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정책연구의 방법은 현재 서구에서 진행중인 이론화작업의 사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서구 복지국가가 짧은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위기설에 시달려오고 있는 불안한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구태여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서구의 사회정책연구의 방법론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회정책, 사회복지연구를 사회과학으로서 정립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본다. 더욱기 복지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이론적 체계도 범세계적으로 보편화, 일반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정책 전문가들은 물론 경제주의론자들까지도 한국의 사회복지를 논함에 있어서 서구 복지국가의 모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그 모델의 도입여부와 그에 따른 방법을 따지는 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증주의적 접근은 잘못되면 제자리 걸음에 머물게 하고, 잘 되어야 매우 소극적인 접증주의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대상인 현상을 한국이라는 사회적 실체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작업이 사회복지, 사회정책의 중심적 문제인 것이다. 복지국가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도 과연 복지국가의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중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과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뚜렷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빈곤의 해소인지, 불평등의 해소인지, 아니면 최저생활의 보장인지 뚜렷한 중심적인 과제가 없다.

사회복지, 사회정책의 중심적인 문제는 이 분야의 독특한 가치체계와 철학에 입각하여 고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회과학방법론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고 처음에 사회과학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둘 사이에는 동일시되기 때문에, 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회과학방법론에

관한 쟁점과 관련하여 중심적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 사회정책의 중심적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실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적 성취에 대한 vision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김동일외, 1983:29).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은 사회적 이용과는 무관한 객관적, 가치 중립적인 탐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관념이면서 그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Gouldner, 1970:13) 사회과학적 이론은 사회적 결과를 갖고 있으므로 어떤 지적체계도 그 인식적 타당성만 갖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Romanayshyn, 1974:2).

사회과학은 바람직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외적실체(external reality)를 다루지 않고는 과학적이라는 특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며,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특별한 실체에 대하여 관계해야 한다. 만약에 인간의 안녕을 능동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한다면 과학적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Becker, 1974:24). 그러므로 추상화되고 기능적인 지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동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Raskin, 1972:240).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조직적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술적-처방적 아이디어와 행동방법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지식·행동’의 방법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실체는 연구대상으로서의 객관적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실·가치의 사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면해야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한 인간적 경험인 것이다(Romanayshyn, 1974:2).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과학이 아니라 인간적 사회과학이다. 그것은 인간적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과 조화되는 과학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과학관으로 사회과학의 중심적 문제에 접근하면서 사회복지의 중심적 문제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베커(Becker)는 그의 논문에서 (“The Rediscovery of the Science of Man”) 사회복지에 중심되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사회과학의 중심적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과학의 기능은 사회재건을 위한 적절한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인간적 자유와 안녕을 촉진시키는 것이 과학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은 인간을 전체 사회라는場에 몰

입되어 특정한 역사의 단계에서 살아가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피조물로 보는 인간행위모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의 기능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들의 지속적인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학은 분석적이고 평가적이며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적 자유에 가치를 두는 사회체계를 파악하고 수립하는 것이 과학의 주된 중심적 문제인데, 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이론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과학의 유일한 과업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직면해야 할 도전이라고 배우는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의 전문적, 교육, 제도들은 이러한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의 문제점은 어떻게 기존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분석과 비판과 평가를 통해서 개인적 자유와 안녕이라는 질적 변화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인간의 공동체적 이상(the communal ideal of man)으로 보는 가빈(Gavin)이 경험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a communal approach to experience)이라는 과학관이 사회복지를 성취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Gavin, 1974:213~223) 것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욕구는 창조적인 의미로 심미적이고 또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적(communal)이란 「우리」와 「타인」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서로 연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Gavin, 1974:224). 따라서 공동체적 수준에서 창조적인 것이 파라다임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전통을 보면 과학적 방법론의 목적이 객관성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고 사실은 하나의 지속적인 경험의 공동체적 참여적 해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참으로 하나의 과학적 기회일 수 밖에 없다는 (Gavin, 1974:224)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연구의 방법론은 기능주의와 실증주의의 관념론보다는 한국이라는 역사적 현장에서 한국인이 자유스럽게 공동체적 이상을 창조하는 것을 중심적 문제로 삼는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회정책연구의 대상이 한국사회의 실체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통하여 개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란 근원적으로 더 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편안한

생존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존이란 개인에게나 전체로서의 사회에 있어서 주관적이며 가치부여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책,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자원에 대한 제어 또는 니드의 층족으로 개념화하는 경우에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서구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경험에 입각한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회복지, 사회정책의 대상을 우리의 경험과 의식에서 인지되는 것에 입각해서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좋은 사고행위이며 이것이 일단 정립되고 합의를 보게되면 그 최선의 사고행위로부터 방법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으며 그 방법은 그 주된 문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될 것이다(Becker, 1974:26).

### 참 고 문 헌

金尙均

1983 “社會科學으로서의 社會政策研究와 社會政策發達論”, 「사회사업학회지」 제 5 호 : 1-24, 한국사회사업학회.

金環東

1983 「한국사회학의 쟁점—메타 사회학적 접근—」, 법문사.

金東一 外

1983 「사회과학방법론 비판」, 청람문화사.

Bean, Philip & S. MacPerson

1983 Approaches to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Becker, Ernest

1974 "The Rediscovery of the Science of Man" in John M. Romanyshyn, Social Science & Social Welfare.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arrier, John & Ian Kendall

1977 "Social Administration as Social Science," in Helmuth Heisler (ed.), Foundations of Social Administration. London: Macmillan.

Clark, Kenveth

1967 Dark Ghetto. New York: Harper Torchbook.

Donnison, D. et al.

1965 Social Poliay & Administration 1st ed. London: Allen & Unwin.

Edwards, John

1981 "Subjectivist Approaches to the Study of Social Policy Making,"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0, Part 3:293-295.

Forder, A

1974 Concepts in Social Administr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albraith, J  
1969 The New Industrial Society. London: Hamish Hamilton.  
1973 Economics & the Public Purpose. Boston: Houghton Mifflin.
- Gavin, William J.  
1974 "Social Welfare through American Philosophy: An Aesthetic Approach," John M. Romanyshyn, Social Science & Social Welfare.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George, V&P. Wilding  
1976 Ideology &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all, P. et al.  
1975 Change, Choice and Conflict in Social Policy. London: Heinemann.
- Heclo, Hugh  
1974 Modern Social Politics in Britain and Swed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iggins, Joan  
1981 States of Welfare: Comparative Analysis in Social Policy. Oxford: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 Mishra, R.  
1977 Society &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inker, R.  
1971 Social Theory & Social Policy. London: Heinemann.
- Raskin, Marcus et al.  
1972 Being and Doing. New York: Random House.
- Romanyshyn, John M.  
1974 Social Science & Social Welfare.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Taylor-Gooby, Peter & J. Dale  
1981 Social Theory & Social Welfare. London: Edward Arnold.
- Tawney, R.  
1929 Equality. London: Bell.  
1936 Religion & the Rise of Capitalism. London: Murray  
R.H. Tawney's Commonplace Book(ed. Winter, J. & Joslin, D). Cambridge: C.U.P.
- Titmuss, R.  
1968 Commitment to Welfar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Commitment to Welfare. 2nd 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 Walker, Allan

- 1984 Social Planning: A Strategy for Socialist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 Walton, R.
- 1969 "Need" Social Services Quarterly 43.
- Watson, David
- 1983 "Making Reality Intelligible: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ical Analysis and the Study of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2, Part 4:491-514.
- Wilensky, Harold
-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